인문대 집담회 · 특강

(my life) Design, before & after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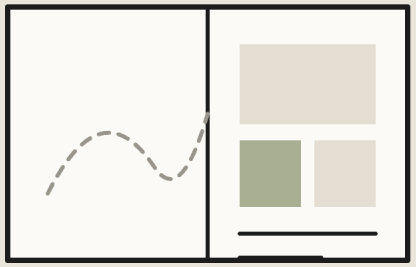
AI 이전 및 이후의 (내 삶의) 디자인 (a.k.a 나의 AI 간증기 같은 고백)



김성우 한림대 디지털인문예술전공 2026.11.24

Today’s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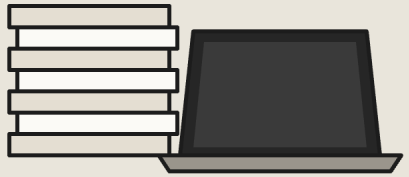
세 개의 막으로 나눠 이야기할게요



01

Design, before & after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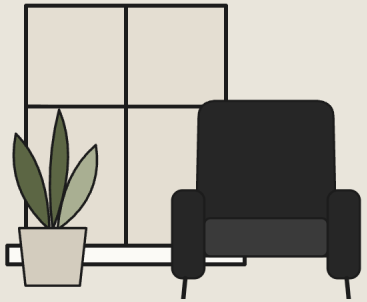
디자인의 미래, 미래의 디자인



02

Job일극복

잡일이 된 Job일, AI로 극복하기



03

My Life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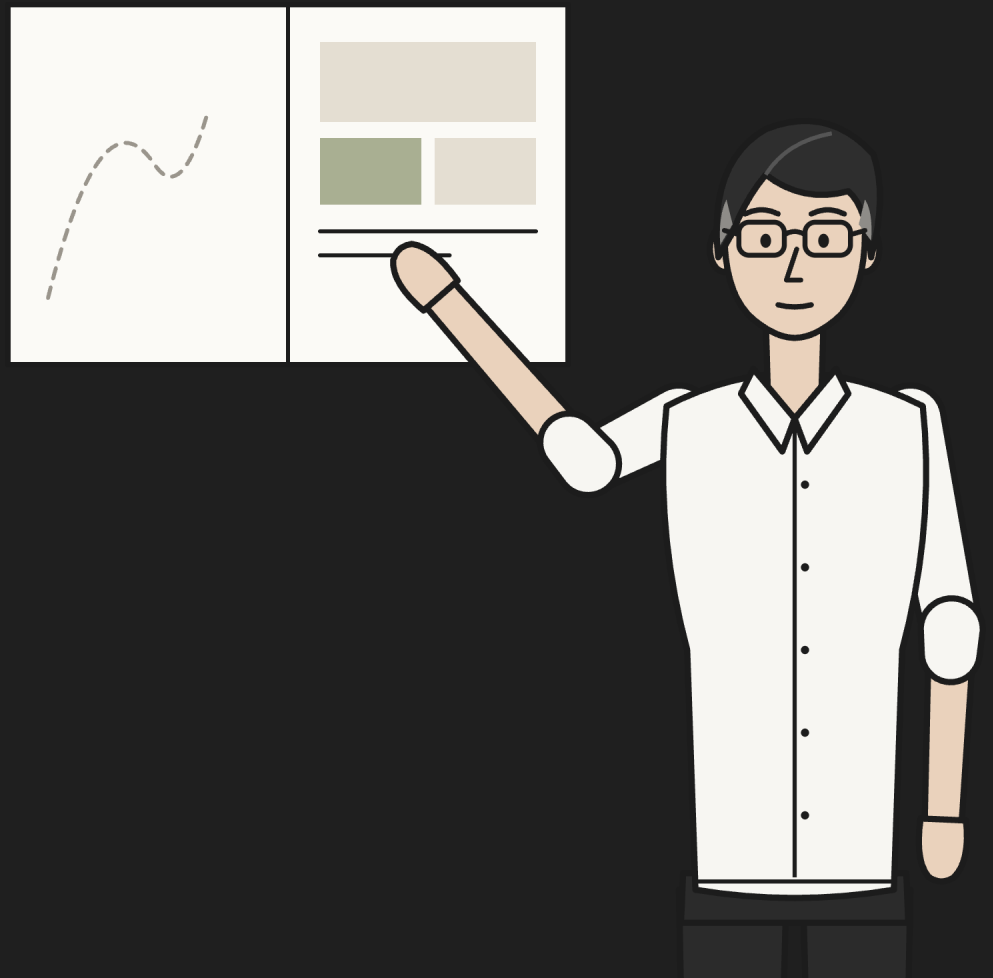
노후를 대비한 삶의 경험 디자인

그리고 결론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이야기

ACT 1

Design, before & after AI

김성우가 주장하는 디자인의 미래, 미래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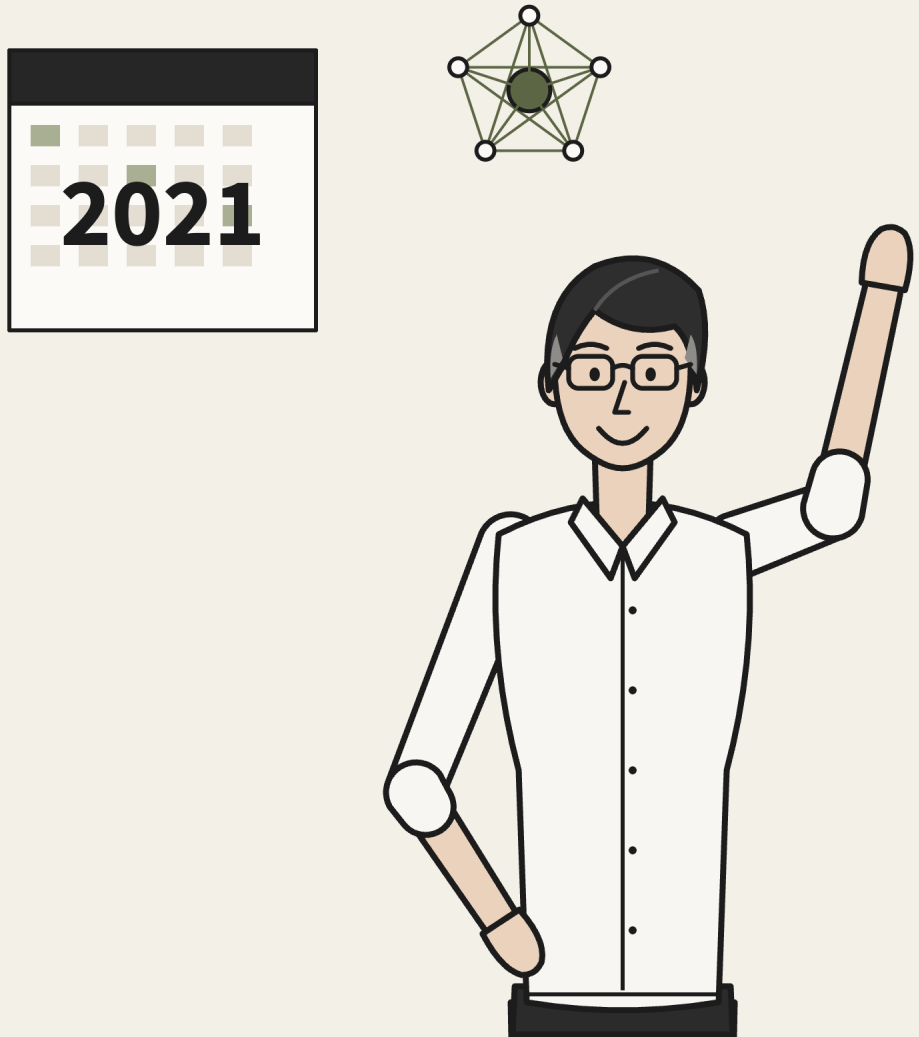


2021 · 한림대 임용 준비 당시

AI에 의한 디자인 패러다임 시프트!

1. AI의 발전으로 비주얼 스킬 중심의 전통적 디자인은 쇠락
2. 대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는 사회적 디자인 등극
3. 디인예는 미래 디자인을 준비하기에 좋은 프로그램

..당시엔, 꽤나 비저너리한 안목...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 스타일에서 경험으로 from Style to Experience



의자를 디자인하라

(예쁘고 멋있고 스타일리시하고 우아하고 미적으로 수려한)

신뢰(trust)를 디자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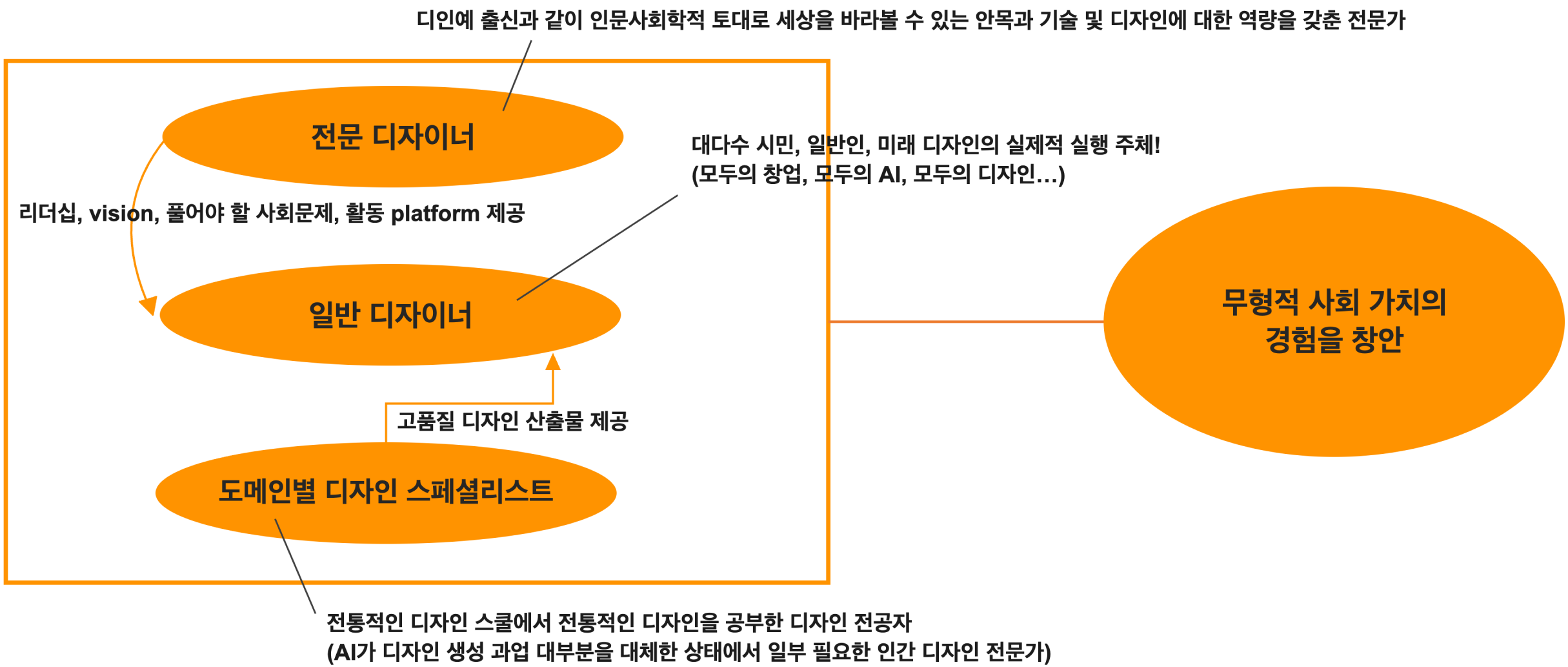
관계, 배려, 서비스, 공익, platform…



From 유형적 사물의 미학적 스타일링에서

To 무형적 가치의 경험의 창안으로

미래의 디자인에서의 디자이너 유형 & main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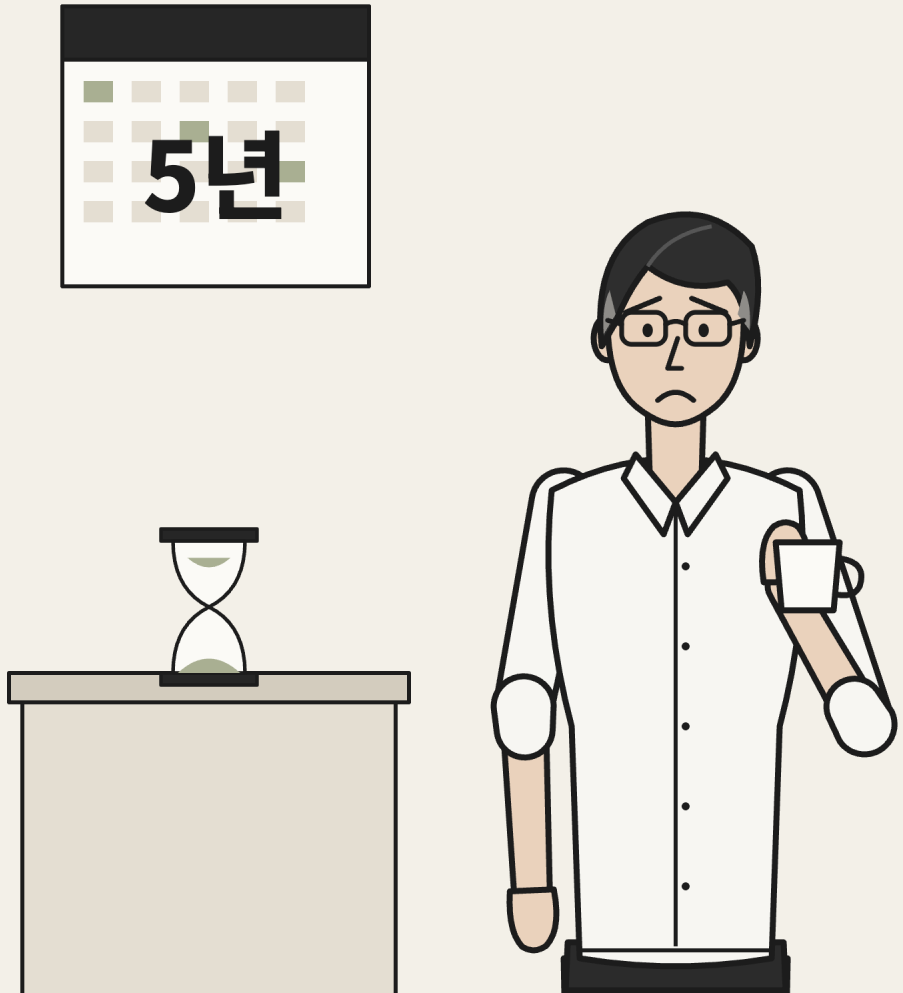


2021 · 한림대 임용 준비 당시

“빨라도 5년은 걸리겠지”

1. 디인예의 융합 디자이너 양성이 왜 미래 디자인인지 설파
2. 하지만 현실이 되려면 빨라도 5년 (그나마 생성형 AI로 한정)
3. 그사이 젊은 교원 충원, 경험 디자인 모듈전공 신설

..지금 보니, 꽤나 안일한 생각이었더라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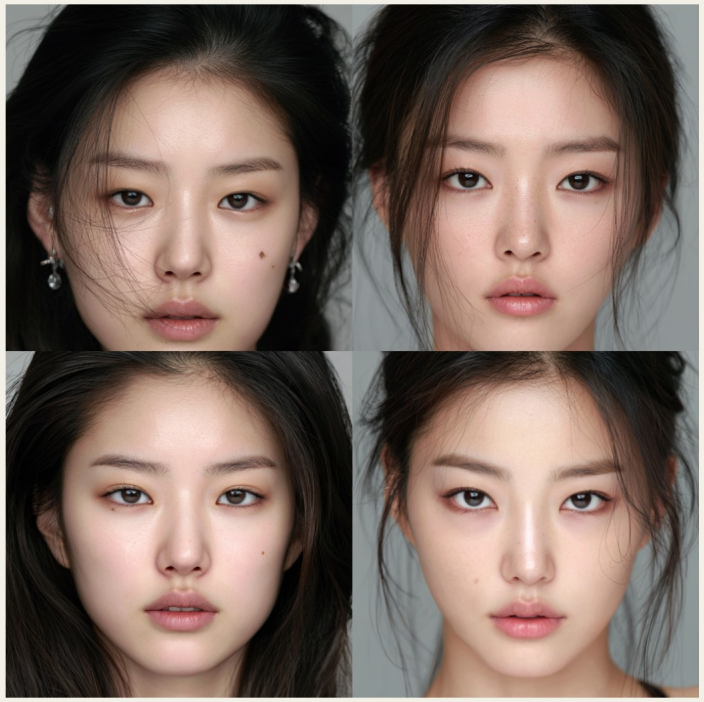
Midjourney의 발전 속도

prompt: create a beautiful korean female actress



2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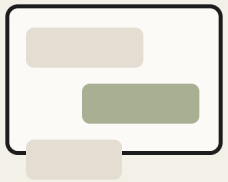
단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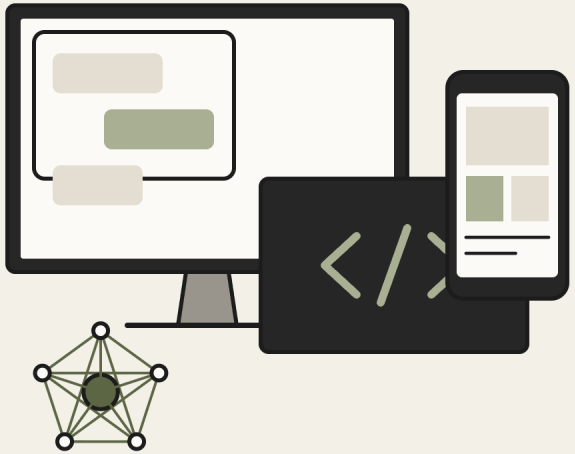


2026.11

2022.11.30 ChatGPT 첫 대중화 출시 이후, 4년 후인 지금...

5년 후에나 스멀스멀 기어 나올 줄 알았던 게
2022년에 갑툭튀...험한 게 너무 일찍 나와버린...





2022.11.30
ChatGPT 등장

2026.11.24
오늘

디자인 프로세스의 변화

AI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잠식해 오는 중

전반부 · 전략 (Design Thinking)
장교들이 막사에서 커피 한잔하며 짜던 전략

후반부 · 구현
막내·대학원생 '노예선'

리서치	기획	설계	구현
Research	Planning	Design	Implementation
따라오는 중	서서히 잠식	서서히 잠식	이미 AI가 기본

← AI의 진격 방향: 구현 담당 신입들은 애초에 굶어 죽었고 이제 경력자들도 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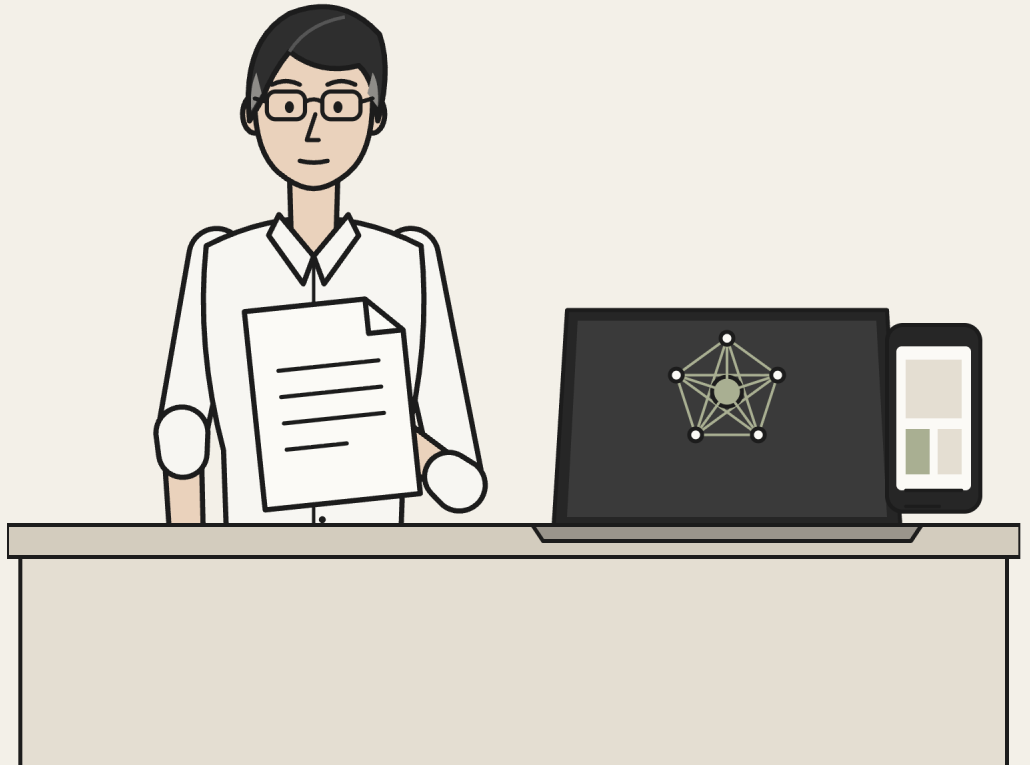


[사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LLM 사용성 평가 vs UX 전문가 사용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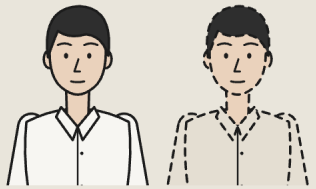


막대는 결과의 경향을 보여 주는 개념도입니다



실무 현장의 Before & After

UX 디자인 실무 현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



Persona → Digital Persona

Digital Twin 기술로 사용자를 빼닮은 AI Persona



UI·GUI → AI 생성

UX Pilot, Google Stitch, Figma AI…



Prototype → Vibe Coding

시뮬레이터 대신 진짜 앱, front-end는 실개발 수준



스토리보드 → AI 영상

비싸고 오래 걸려 못 하던 영상 프로토타입을 실사영화 수준으로 손쉽게 제작

구현에서 기획까지, AI가 앞쪽으로 → 인간 디자이너의 역할은 점점 줄어드는 중

AI 기반 디자인의 미래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답 없음

더더군다나

정식 디자인 스쿨도, 학위도 없는 한림대

AI로 갈수록 줄어드는 신입 채용

‘명문대 라인’마저 졸업후백수직행 후배들 챙기느라 더 치열해진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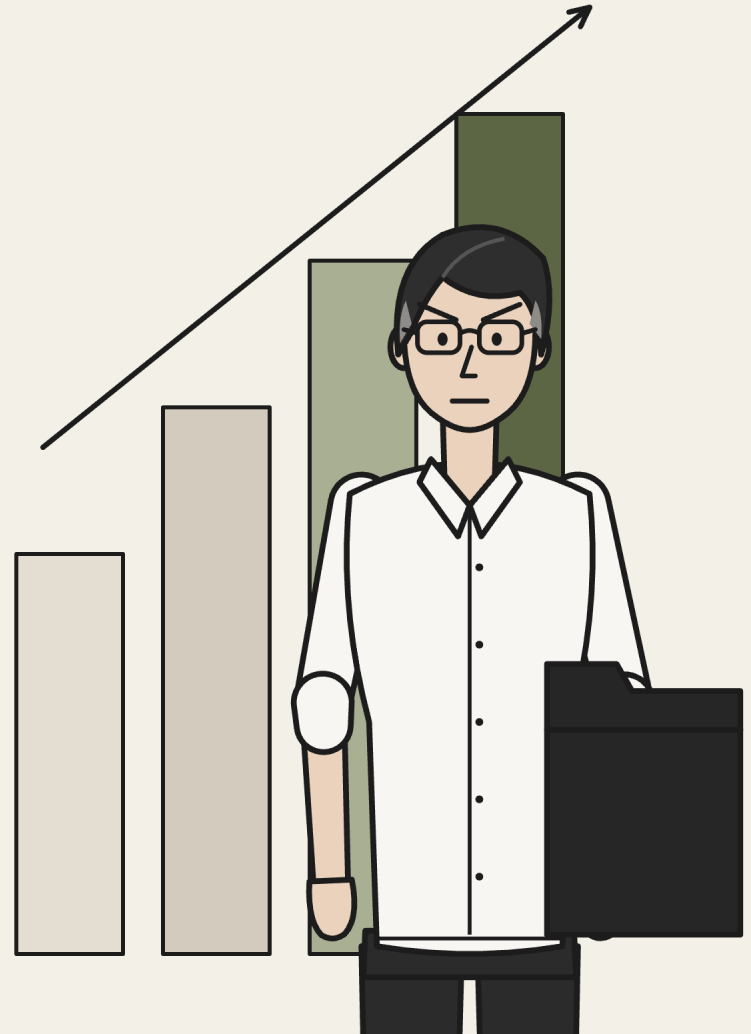


유일한 위로: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 (친정은 더 몰락 중…)

그래서

뭐든 해야지… 하다못해 혼자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사회혁신디자인	→	AI 기반 지역혁신디자인
통일 디자인	→	AI 기반 디지털 통일
인재 양성	→	AI 솔로프리너 · 문화 경험 기획자 · 크리에이터/메이커
나의 삶	→	**AI로 나와 내 주변의 Life Experience 디자인**
무엇보다	→	나부터 AI 지식 업그레이드



AI로 나와 내 주변의 Life Experience를 바꿔 보는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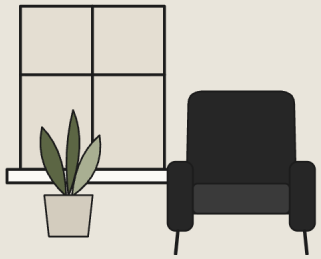
두 갈래의 프로젝트 — more of a 탐구



ACT 2

Job일극복

AI로 내 업무에 혁신을 — ‘Job일이 잡일’인 현실 극복기



ACT 3

My Life Experience Design towards Wellness

노후를 대비한 삶의 경험 디자인

ACT 2

Job일극복

잡일이 된 Job일, AI로 극복하기



AI 업무혁신

본업 속 '잡일'은 AI에게 맡기자

내가 하는 모든 본업 활동에서 단순 반복형 노동을 찾아 AI로 해결

강의 | 연구·논문 | 컨설팅 | 세미나 | 집필

시간 ↓ | 노력 ↓ | Pain ↓



개인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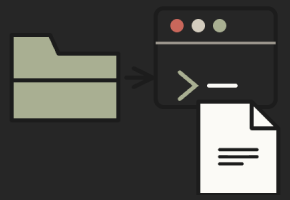
Agent · CLI

회의록 녹음/녹화본만 폴더에 넣으면 알아서 HWP 보고서까지 제작(출)



예전에는

1. 기억에 의존하거나 녹음·녹화본을 다시 보며 요약
2. 요약을 HWP 양식 보고서에 옮겨 쓰기
3. 증빙 사진 촬영, Zoom은 영상에서 직접 캡처
4. 사진을 깜빡하면… 사유서까지



지금은

1. 녹음·녹화본을 회차별 폴더에 넣기
2. 감시 스크립트가 새 파일 감지 → AI 에이전트 실행
3. 양식에 맞춘 HWP 보고서 자동 생성
4. Zoom 녹화본에서 사진까지 알아서 골라 삽입

개인 사례 2

Agent · CU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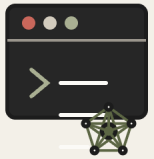
“이런 주제 논문 찾아 줘” 한마디면 끝

예전에는 · 모두 내 손으로



KCI·Scholar 검색, 목록 작성 › 도서관 로그인 › 한 편씩 검색·확인 › 사이트 넘어가 다운로드 › 초록 읽고 요약

지금은 · 말 한마디 → AI가 끝까지



목록 작성 › 도서관 로그인 › 검색 › 다운로드·저장 › 양식대로 요약 › 관련성 % 표기

나는 AI 요약을 보고, 관련성 높은 논문만 골라 제대로 LR 시작

개인 사례 3

Agent

공부하면서 실시간으로 자라는 교재

Mission 1
통계를 처음 접하는 학부생 1저자를 위한 통계 교재

Mission 2
나도 처음인 UX 실험 방법, 학생과 함께 독학하는 교재

1. 공부하며 AI와 Q&A
2. AI가 들어갈 자리 판단
   몇 장 몇 절, 본문 또는 Box
3. 앞뒤 내용까지 교재 전체 갱신

> 3.2절을 넣었으니 1, 2장을 고치고, 5장 내용 상당 부분이 3.2절과 겹치니 3.2절을 참조하게 하면서 5장은 줄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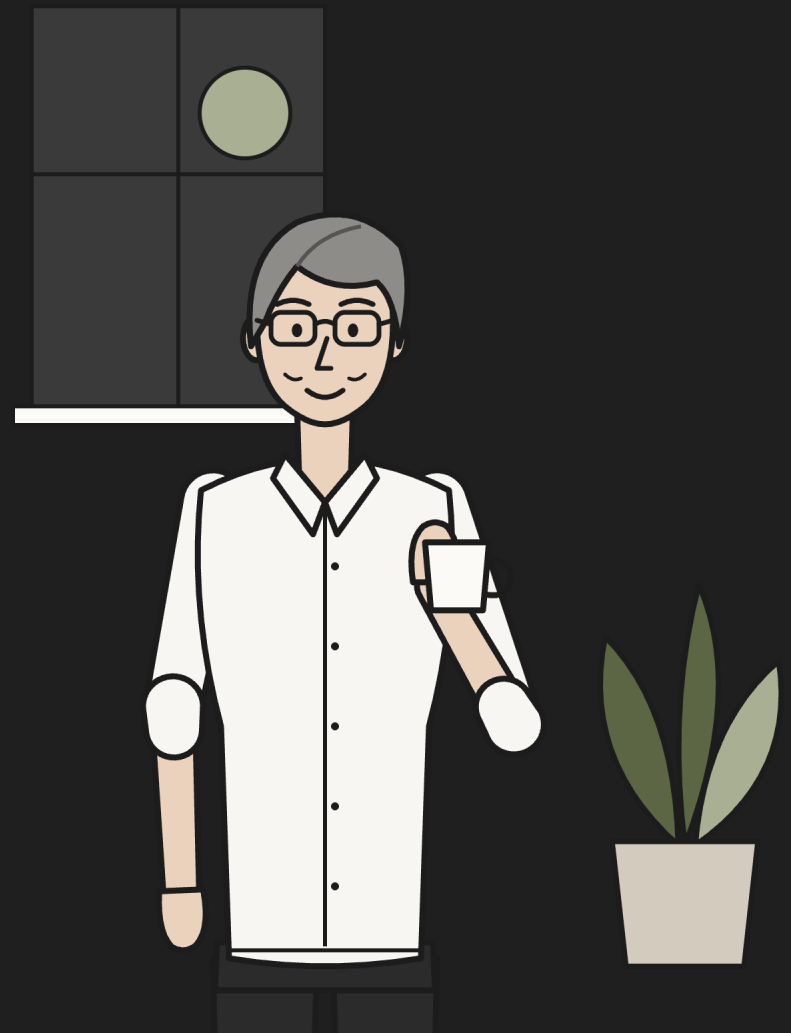



"뭘라도 5년은 걸리겠지"
5년
2022.11.30 ChatGPT 첫 대중화 출시 이후,
4년 후인 지금...
Jazz Piano
Various Artists
LEGO
Disney

AC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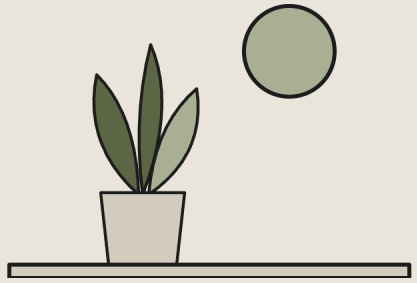
my Life Experience Design towards Wellness

노후를 대비한 삶의 경험 디자인



(나의 노년을 대비한) 개인 프로젝트

노년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세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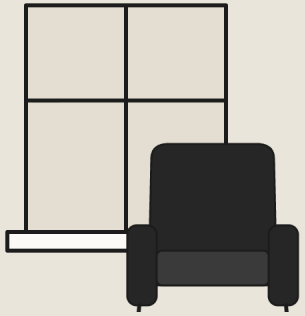


Well-Being

지금부터 20~30년

은퇴까지 약 10년 + 그 후 더 일할 수 있는 1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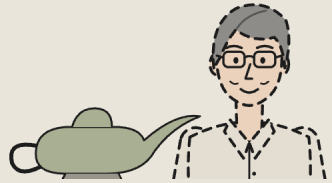


Well-Dying

Well-Being 이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



Well-Life-After

사망 이후

내가 떠난 뒤의 시간

Well-Being

4개 부문에서 독립성 준비: Zero-Dependence Senio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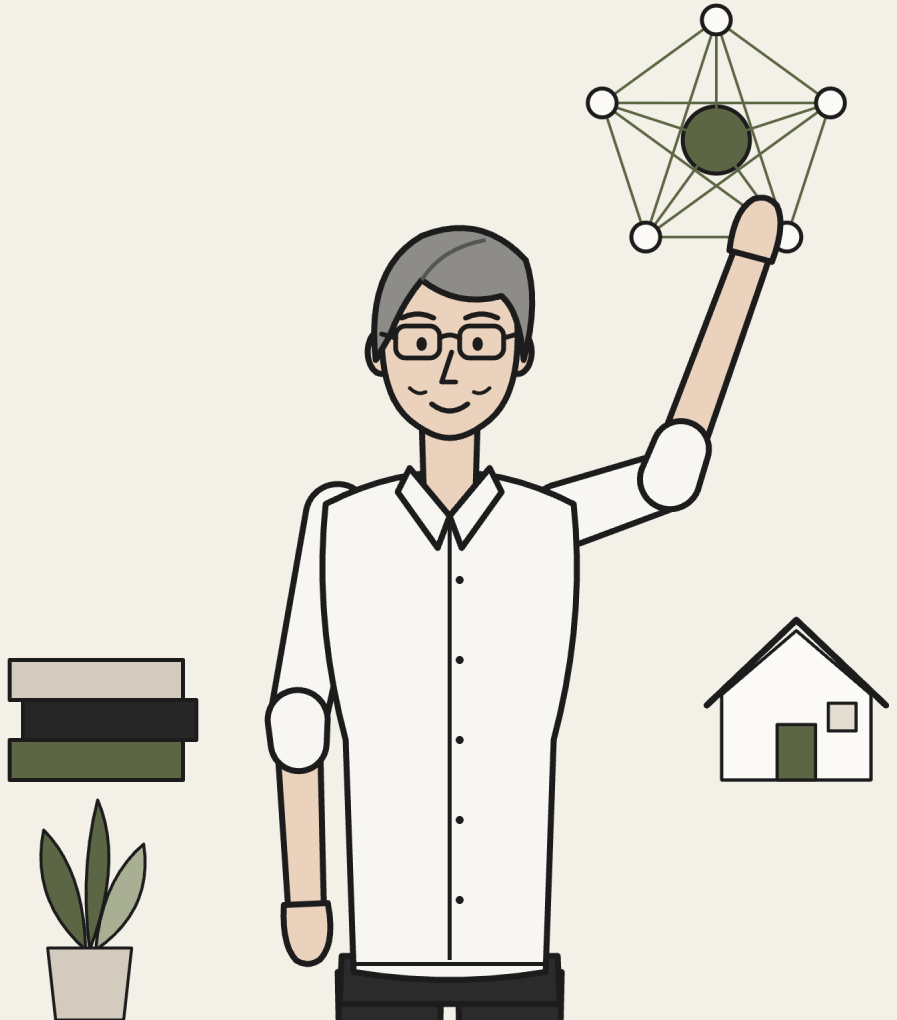
자녀 의존도 0의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갖춰야 할 네 가지 역량을 결정

신체적 건강
마지막 날까지 내 근력으로 일상을 스스로 꾸려 가기

인지적 존엄
치매 없이 명료한 정신으로 삶의 주체성과 품위 지키기

경제적 자생
의료·간병·생활비를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경제력 갖추기

디지털 역량 · Digital & AI Literacy 핵심
AI·휴머노이드 등 고령층을 위해 계속 등장할 IT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Well-Being

Zero-Dependence Senior Life

자녀 의존도 0, 온전히 자립적인 노년의 삶을 설계하기

컨셉의 뿌리
삼성전자·Philips Design·KT 실무 시절의 Zero-Maintenance, Zero UI

핵심 역량 중 한 항목인 AI & Digital Literacy
Job일극복과도 연계: 나이 먹고도 계속 일하려면 체력소모형 잡일을 줄이고 '시니어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에 보다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제안
고령화가 심한 지역사회 혁신 과제로 한림대에서 인문+공학 프로젝트화



Well-Dying

삶의 마지막 장의 품격을 사수하는 경험 디자인

아직 탐구가 필요

1. Well-Dying 과정의 중요한 경험요소를 발굴해 AI와 연결 (예: AI & 호스피스)
2. AI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삶의 마지막까지의 품격을 지키도록 돕는 디자인



Well-Life-After

나의 AI Avatar 개발 (a.k.a 나의 디지털 귀신 만들기)

Why? 나의 사후에 자식이나 제자가 내 생각·조언이 듣고 싶을 때 소환하는 (능력 없는 ^^) 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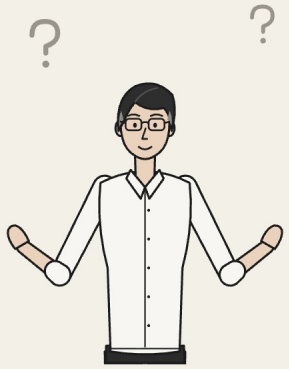
How? 지금까지 남긴 모든 기록 + 앞으로 체계적으로 남길 기록을 토대로 AI 기반의 Digital Twin 개발

덤 Local LLM, RAG, NUI 등 관련 기술을 공부할 좋은 동기 → Well-Being의 AI & Digital Literacy 향상에도 도움



Epilogue

무결론이 결론입니다



1. 2010년대 후반 국민대 시절에 본 디자인의 미래, 지금도 변함없다
2. AI도 예견했고, 그래서 디인예의 가치는 오를 거라 믿었다
3. 다만 AI가 이렇게 빨리 도래해서 모든 걸 잠식할 줄은 몰랐다 (특히 시기 & 속도)
4. 고군분투 중...지역혁신·라이프 경험 디자인·업무혁신... AI를 이래저래 쓰며 살 길 찾기
5. 느낌적 느낌상... 모르긴 몰라도... 결국 다시 초심행 될 듯

   디자인의 미래 = 사회 디자인 = 인문사회적 소양 기반의 융합 디자이너(기획자)
6. 그러니 그냥 5번에 올인으로. 틀리면… 하는 수 없고

I am no god, just a mere mortal — but I did my best :)

slide 28 뒤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할게요. '무결론이 결론'이라는 타이틀의 슬라이드에요. 본문 내용은 이런 걸 넣기로 하죠. 문장은 더 다듬어주시길 (1) 2010년대 후반 국민대 시절에 본 디자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 (2) AI도 예측했고 그래서 미래 디자인에서 디인예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믿음 (3) 다만 AI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모든 걸 잠식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함(특히 시기 & 속도) (4) 지역혁신, 라이프 경험 디자인, 업무 혁신 등 다방면에 AI를 정신없이 써보면서 탐구 중 (5) 모르긴 모르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듯: 디자인의 미래 = 사회 디자인 = 스킬보다 인문사회적 소양을 토대로 한 융합 디자이너(기획자) (6) 잘 모르겠고 그냥 5에 올인하게 될 듯. 틀리면..하는 수 없고.. i am no god just mere mortal but did my best 로 종결 :)

간략히 보기

파일 1개 읽음, 명령어 3개 실행함 외 3단계 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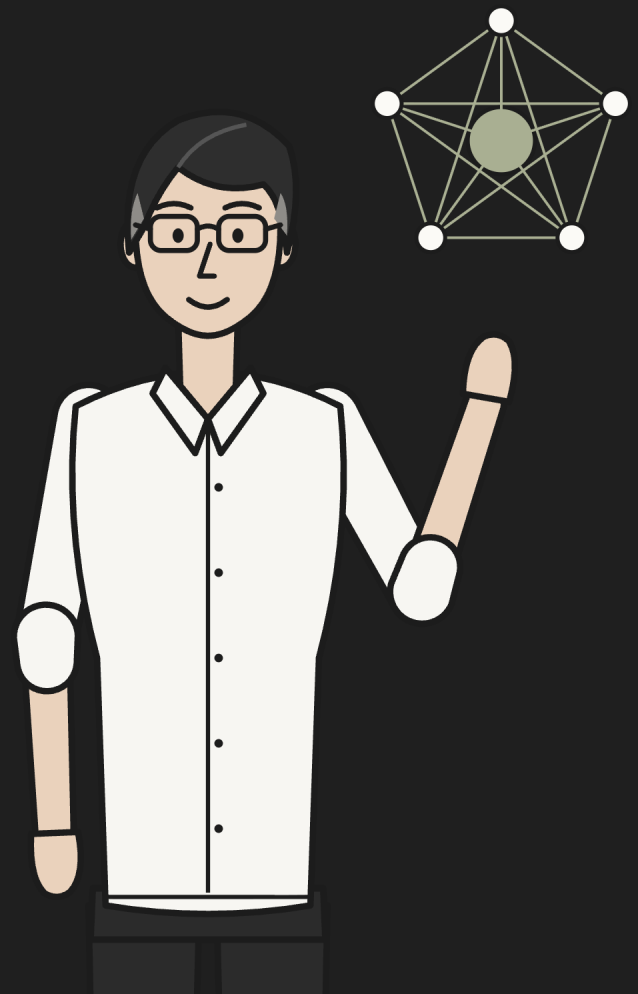
My Life Design, before & after AI
Claude Slides

Digital Twin 슬라이드 바로 뒤에 새 29번 슬라이드 **"무결론이 결론"**을 넣었어요. 덱은 이제 33장이고, "감사합니다"는 30번으로 밀렸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Design, before & after AI — 그리고 My Life Design



One more thing...



향후 추진 예정 · 교원창업 아이템

개인사·마을사를 기록보존전달하는 AI Storyteller

Social Enterprise — 한 사람의 인생, 한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해 영상 기반 AI 스토리텔러 만들기

함께하실 분을 찾습니다

구술사·(소멸위기) 지역사 기록·보존에 관심 있는 인문대 교수님과 협업 희망



향후 추진 예정 · 교원창업 아이템

사례) 개인사·마을사를 영상으로 제작

"그때 내 나이가 여섯 살쯤 됐을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마루 끝에 걸터앉아 흙마당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곤 했어. 부엌 쪽에서는 엄마가 저녁 밥 짓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들려오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장작 연기 냄새가 마당까지 쫙 깔렸지. 엄마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슥슥 닦으면서 '얘야, 어두워진다. 발 씻고 들어와라' 하고 부르셨어. 그 소리만 들으면 하루가 다 간 줄 알았지."

